

아시아공동체론 수강소감 에세이

응용화학생명공학부 류균

긴 휴학 후 학교로 복학한 나는 우연한 기회에 이 과목을 수강해보지 않겠냐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 이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아시아공동체론? 유럽공동체나 미주공동체는 들어본적이 있었지만 아시아공동체라는 말은 나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왔다. 그도 그럴것이 여태 아시아공동체는 다른 지역공동체보다 훨씬 넓은 땅덩어리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렇듯 광범위한 지역이 공동체로 묶인다는 것을 누군가가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덕택에, 난 아시아공동체론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으며 지금와서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그 당시 난 이 과목 자체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른채 단지 친구랑 ‘같은 수업을 듣고 싶어서’ 수강신청을 했다.

수강신청 이후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이 아시아공동체론이라는 과목은 시험이 없고 매 강연마다 저명한 인사들을 모신채 윤강한 다음 에세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공대생인 나에게 다소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글 쓰는것도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지식이 전무했기에 별로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위촉된 채 첫 수업을 들었다. 첫 수업은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 잭슨스쿨 한국학 석좌교수의 강연으로서, 남북한간의 외교와 북핵문제에 대한 수업이었다. 연사의 커리어와 수준 높은 강연에 나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여태 이정도 수준의 연사를 강단에 모셨던 과목은 내 기억엔 아주강좌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단지 첫 주 뿐만이 아닌 몇 주가 지나도 수준 높은 연사들이 계속 초빙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목에 국제학부에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나와 같이 거의 없더라도 무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 수업을 듣기전까지 아시아는커녕 가까운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했고, 이 부분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거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막상 수업에 임해보니 앞에서 강연하는 연사들의 강연능력이 워낙 훌륭했고, 관련 분야에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에게도 수준에 맞는 설명을 통해 잘 설명해주어서 수업을 잘 듣기만 하면 수업 내용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처음엔 수업을 들을 때 다소 구름 위에 떠있는 것 처럼 머릿속이 흐리멍텅한 나였는데, 몇 주가 지나 내용들이 쌓여가면서 수업을 들을 때 점점 머릿속이 깔끔해지고 무언가 개념들이 정리되는게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함양된 것이다. 게다가 수업시간 이후 제출하는 에세이 또한 수업내용 정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칫하면 두루뭉술하게 머릿속에 있을 개념들이었는데 에세이를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쓰다보니 쓸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지식 또한 내 머릿속에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가 워낙 취업이 제일인 시대이고, 그러다보니 외부 강연이나 토크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보니 아시아공동체론에서 진행되는 수준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학생에게는 흔치 않은것 같다. 비슷한 과목으로서 아주강좌가 있지만 이는 학술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다소 교양이나 멘토링 수준에서 그치며,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공동체’라는 내용으로 학술적인 지식과 교양을 한번에 잡는 아시아공동체론 과목 개설은 아주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수업 중 일환이었던 한일교류회의에서도 느꼈지만, KDI 원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 인사들을 아주대학교에 모

셔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정도 수준의 학술 회의를 학부생이 참여할 기회는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번학기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함으로써, 각계에서 모시기 힘든 전문가들의 강연을 학교에 앉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국제학부 수업을 듣는 학생 뿐만아니라 아주대 학생들 전체에게 있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다음학기 국제학부 전공 선택과목이 고민되거나, 혹시 교양학점이 비어 있다면 아시아공동체론을 수강해보는 것은 어떨까. 절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